

Vocabulary Instruction for Students with Study Abroad Experience

오 희 진
(전남외국어고등학교)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 교육인적자원부가 조사한 '2005학년도(2005년3월1일~2006년2월28일) 초. 중. 고 유학생 출국 및 귀국 통계'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유학을 떠난 초. 중. 고교생은 전년 대비 6.6% 증가한 3만514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미국으로 유학 간 학생들은 전체의 34.6%인 1만2171명으로 집계됐으며, 미국 이외의 국가로는 중국(18%), 캐나다(12.6%), 동남아(11.4%), 호주(4.8%), 뉴질랜드(4.0%), 일본(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민이나 조기 유학 그리고 해외에서 일정기간의 연수 프로그램을 마치고 귀국하는 귀국학생의 숫자도 점점 증가하여 2004년 기준 미국과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필리핀 등 영어권 나라에서 귀국한 학생은 11,060명에 이른다.

나이, 체류기간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귀국학생들은 영어를 모국어나 제2언어로 사용하는 상황(ESL, English as Second Language)에서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상황(EFL, English as Foreign Language)에 놓이게 됨에 따라 귀국 후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적응 현상을 보이거나 일정 시간 후에 영어 손실을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는 귀국학생들의 영어수업 부적응과 언어손실은 국제적 감각이 있는 인력 자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손실을 뜻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국내 상황에 대한 적응 교육이나 동화 교육만 강요하기 보다는 귀국학생들을 위한 추후지도와 심화지도가 필수적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ESL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영어 습득 및 어휘학습 방법과 이 학생들이 귀국 후 접하게 되는 EFL환경에서의 학교 영어수업과 어휘학습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다음, 그 학생들이 수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보고, 이들에게 효율적인 영어 교수방법과 어휘학습방법을 살펴보고자한다.

II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연구의 논의 사항은 첫째, 외국에서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였으며, 그것이 자신의 영어 실력향상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둘째, 전반적으로 귀국학생들의 한국 영어 수업 태도는 어떠한가? 셋째, 학교 영어수업에 잘 적

응하지 못하는 학생들과 잘 적응하는 학생들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넷째, 귀국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어휘 학습법과 영어 수업 방법은 무엇인가? 이다. 이러한 논의를 중심으로 귀국학생의 영어 실력 향상을 돕는 어휘 교수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영어권 국가에서 체류 경험을 가진 귀국 학생들이 한국의 영어교육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한국식 영어 수업에서 어떤 문제들을 겪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조사하고자 참여관찰법과 심층 면접법, 설문지를 이용한 질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는 7명의 귀국 학생의 이야기라는 특수성을 가지지만, 이 학생들의 이야기에 대한 좀 더 넓은 맥락에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해석을 지향한다. 각 학생들이 지닌 특수하고 개별적인 사례들은 비슷한 경험을 갖는 다른 귀국학생의 경우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귀국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고와 행동 양식을 포함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에는 전남 외국어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귀국 학생 중 총 7명이 참여 하였다. 참여 학생의 체류지, 체류 시기, 귀국 시기는 각각 다르지만, 이들 모두 1) ESL 환경에서 18개월 이상 공부한 경험이 있으며 각각의 응답자의 개인 정보는 <표 1>과 같다.

1) 스페인과 불가리아에 체류한 학생은 EFL 환경에서 체류하였으나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영어 수업과 의사소통 매개로 영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ESL 환경에서 수학한 것으로 간주함.

	체류지	체류시기	비고
학생 A	미국 2년	초등 5학년 ~ 6학년	어학연수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체류
학생 B	미국 5년	초등 3학년 ~ 중학교 2학년	아버지 사업상 가족과 함께 체류
학생 C	영국2년, 불가리아 2년	초등학교 3학년 ~ 6학년	아버지 사업상 가족과 함께 체류, 불가리아에서 동생과 함께 홈스테이
학생 D	스페인 6년	초등학교 3학년 ~ 중학교 2학년	아버지 사업상 가족과 함께 체류
학생 E	뉴질랜드 2년, 외국인학교 2년	초등학교 6학년 ~ 중학교 1학년, 외국인학교 중학교2학년 ~ 3학년	어학연수 목적 혼자 홈스테이, 귀국 후 외국인 학교에 2년간 다님
학생 F	뉴질랜드 1년 반	초등학교 5학년 ~ 6학년 1학기	어학연수 목적, 혼자 홈스테이 함
학생 G	필리핀 1년 반	중학교 2학년 ~ 3학년 1학기	어학연수 목적, 혼자 홈스테이 함.

<표 1> 귀국학생의 외국에서 학습 경험

3.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을 위해 총 7명의 응답자들이 참여하는 영어 수업 수업을 관찰하고 개별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수업시간의 관찰은 면접자가 수업자로 참여하여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응답자와의 인터뷰는 1인당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인터뷰에서 연구자는 응답자의 개인 프로필과 거주 국가에서의 체류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 주제와 내용 및 절차를 응답자에게 충분히 이해시켰고, 신뢰감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설문은 외국 체류 시 영어 학습방법, 한국의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와 한국 식 영어 수업방식에 대한 신념 등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가 만든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인터뷰는 학습자들이 현재 한국 영어 학습에 대해 왜 그런 태도를 지니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영어 학습을 할 수 있겠는지에 관한 더욱 심층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 이루어졌다.

IV 연구 결과

1. 연구 문제

외국에서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였으며, 그러한 방법이 영어 실력 향상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주로 초등학교 때, ESL 환경에서 짧게는 1년 6개월부터 길게는 6년 동안 살았다. 귀국학생들의 영어 습득방법을 살펴보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많은 언어입력에 노출되면서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언어를 습득하게 되었고, 또래 집단과 교사, 보호자와의 상호작용과 TV나 라디오와 같은 매체를 통해 영어 말하기와 듣기실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귀국학생들은 학교 수업시간에 비치된 다양한 책을 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어휘와 문법과 같은 언어 지식을 습득하였다. 이들에게 읽기 활동은 총체적 언어 학습 방법으로 소설책이나 학교 교실에 비치된 책을 읽은 후, 내용과 줄거리를 이야기해보거나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써봄으로써 읽기, 어휘, 쓰기를 학습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다독을 통해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고, 문맥 추론과 반복적으로 어휘에 노출되면서 무의식적으로 영어 지식을 습득하고 어휘를 자동적으로 익히게 되었고 영어에 대한 직감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는 영어 학습에 대한 신념 형성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 B): 학교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다 보면 6개월 후에는 다 들리고 말할

수 있었고, 1년이 지나니까 오히려 거꾸로 한국말을 잊게 되었다. 학교 영어 수업시간에는 보통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한 감상문을 쓰는 것을 하였다. It majorly affected the way of speaking. By learning to speak fluently it also helped me grammatically. I know what is right or awkward naturally.

(학생 F): 평소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수업시간에 들은 단어들을 잘 기억하여 사전에 추측하여 단어를 찾아보고, 단어 확장 및 말하기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친구들과 놀거나,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매일 듣고 말하고 수업시간에 쓰기활동을 하면서 영어에 익숙해질 수 있었다.

(학생 G): 회화 위주로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문법을 자연스럽게 익혔다. Studying English abroad is easier than in Korea. I could learn English naturally.

(학생 E): 외국에서는 주로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놀고, 책을 읽으면서 영어를 배웠다. 한국에 되돌아와서도 맨 처음에는 외국인 학교에 다녔는데, 미국의 정규수업과 같은 방법으로 공부하였고 주로 시나 소설을 수업시간에 많이 읽었다. 영어를 분석하지 않고 시나 소설을 읽으면서 주로 자신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 했었다.

(학생 A): While he was in elementary school, he wrote a diary and read it aloud to his homeroom teacher everyday. I read a good deal of English books available in class such as Harry Porter Series, classics and short stories. I watched TV and sometimes watched the same program over and over until I fully understood it. 내가 갖고 있는 영어는 전부 미국에서 배운 것이다. 미국에서 2년간 머물면서 영어에 대한 감을 좀 익히게 되었다.

2. 연구문제

귀국 학생의 전반적인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교실수업에서 교사들이 수업 중 사용하는 교수법을 조사한 박덕재, 손성규(2001)의 연구에 따르면 47%가 교사중심의 강의식 교수법을 사용하고, 약 30%가 교과서 내용을 학생들에게 해석이나 발표하도록 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1) 한국의 해석위주의 수업 방식에 대한 태도

귀국학생들은 해석위주의 영어 수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영어 지문의 내용을 해석하지 않아도 문맥을 통해 그 뜻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

로 문장을 분석하고 문법 틀에 맞추어 단어를 집어넣어 해석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시간낭비라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문장을 해석하는 수업은 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유도하기 보다는 영어수업을 매우 지루하고 어렵게 만든다고 여긴다.

(학생 B): In the U.S. it isn't hard to recognize that studying is not all about memorizing. It's more about creative thinking. In Korea mostly it's all about memorizing. Students who are better at memorizing are most likely to succeed. Even studying foreign language is like memorizing complicated math formula.

(학생 E): I don't understand why we have to translate in Korean. We can understand English through English. It's waste of time.

(학생 F): 한국 영어는 글을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에서 보려하기 보다는 문법을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문법 틀에 단어를 끼워 맞추어 해석한다. 영어를 하나의 언어로써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학문으로써 공부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Grammar is not entire of English, but the way of teaching makes me feel like grammar is everything. 문법적 완성을 위해 배우는 것은 자칫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영어를 너무 어렵게 느끼게 한다.

(학생 G):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한국선생님들은 우리가 해석 못하면 영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해석 못하는 것은 영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데. 내용 이해되는데 굳이 해석할 필요가 있나요? 선생님이나 애들이 해석하고 있으면 정말 지루해요. 그냥 해석하지 말고 지문 읽고 요지나 내용 파악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2) 한국의 명시적 문법 설명에 대한 태도

EFL상황에서 한국의 많은 교사들은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직관이 없기 때문에 명시적 설명식의 교수법이 학생들의 학습의 속도를 증진시키고, 문법적 언어 지식이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덕재, 손성규(2001)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의 70%가 학생들이 배운 문법지식을 실제 대화에 부분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85.9%가 문법교육이 의사소통능력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문법이 영어 의사소통과 영어 습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긴 한국 영어교사의 생각은 귀국학생들이 문법 설명식 수업에 대해 느끼는 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ESL환경에서 자동적으로 영어를 습득한 학생들은 명시적 문법 규칙 설명에 익숙하

지 않다. 특히 한국에서 중학교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귀국 학생들이 한국 영어 수업에서 겪는 가장 어려운 점은 영어 문법 용어와 명시적이고 지나치게 분석적인 수업방식이었다. 이들은 한결 같이 한국의 영어 수업은 모두 문법에 관한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영어를 마치 수학기초처럼 배운다고 생각하였다. 심지어 학교에서 배운 문법은 외국에서 영어를 사용할 때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었다.

(학생 A): 한번은 선생님이 한 시간 내내 예문도 없이 영어문법을 설명하고 문제를 풀라고 했는데, 선생님 말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다. 정말 최악의 수업이었다.

(학생 E): English learning in Korea is basically almost about grammar and 수능형식. Everything is about grammar. 한국 문법 문제 푸는 것과 문법을 적용해서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것은 다른데 한국 사람들은 문법문제를 잘 풀면 모든 다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또 문법적으로 말은 되는데 막 흐름상 어색한 것도 많다. 외국에서는 문법을 문법만을 위한 문제로 안 본다. 문법을 specific하게 배우기는 하지만, 이것은 fill in the blank나 essay 쓰기위해서 배우는 것이다. 중학교 때는 문법을 대충 배우고 고등학교 때는 소설, 시를 배운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문법은 essay를 잘 쓰기 위한 것이다.

(학생 G): 한국의 영어 수업에서 나는 Mocking bird같다고 느낀다. 한국은 모든 것이 문법위주이다. 한국 영어 공부, 특히 학교에서는 너무 수능체제(문법) 위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외국에서 사용할 때는 무용지물이다. 한국에서 받는 영어 수업은 useless하다고 여긴다. 교과서를 읽으면서 이 문장에서 쓰인 문법은 i~이다 라는 식의 수업은 나에게 맞지 않다. 오히려 문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알 수 있었는데 오히려 문법을 공부하니깐 더 헛갈린다. 문법은 회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혔으면 좋겠다.

(3) 한국의 어휘 학습에 대한 태도

응답자들은 어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단순히 영어 단어의 뜻만 물어보는 식의 학교 단어 시험의 효과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단어와 뜻을 연결시켜 외우는 식의 탈문맥적인 영어 어휘지식은 좀처럼 장기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어휘 장기간 기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단어를 접하면 그 단어를 이용하여 i문장쓰기와 대화하기와 같은 생산적인 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

(학생 A): I must learn vocabulary but sometimes it's too much to memorize and it frustrates me. I hope there aren't so many words to memorize just for the test.

(학생 B): 솔직히 한국에서 시험 보는 단어는 내가 다 아는 것이어서 외울 필요도 없다.

(학생 E): 대부분의 학생들은 단어집을 준비해서 영어단어와 한국말 뜻을 보면서 외우는데, 이는 단어를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 힘들며 많이 외워 봤자 잊어버리기 쉽다. 한국 학생들은 단어는 많이 아는데 잘 사용할 줄 모르는데 이것은 실제 단어를 어떻게 문맥에 맞게 사용하는지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

(학생 G): 애들은 시험 볼 때만 단어를 암기해요. 암기해도 순전히 시험을 보기 위한 것이어서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단어 뜻은 알아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활용력이 떨어져요.

3. 연구 과제

학교 영어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과 적응하는 학생들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귀국 학생들이 영어를 잘하고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식 영어 교육에 적응하고 교사의 문법 설명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학생들은 학교 시험에 우수한 결과를 가진 반면에, 한국식 영어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은 토플과 토익 같은 영어 시험에서는 고득점을 받고 영어회화나 쓰기는 잘하지만 학교 시험은 4~5등급을 받는 결과를 얻기도 한다. 학교 수업과 시험과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은 학교시험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고 수업시간에도 잘 참여하지 않고 토플이나 토익, 소설책을 읽는 것으로 수업시간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1)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학생

영어도 잘하고 수능, 학교 시험도 잘 보는 학생들은 비록 문법책이나 단어암기의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지만 문법책을 공부하기도 하고 수능영어 문제집을 사서 문제를 풀기도 하는 등 한국식 교육 체제에 적극적으로 적응한다. 한국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맞게 자신의 영어 학습방식을 바꾼다.

(학생 A): 나는 대체로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편이다. 문제 위주의 학습으로 문법, 어휘를 익히는 방법으로 공부한다. First I tried Sungmoon English Grammar book. But because I could solve the problems anyway, the efficiency was real low.

To compete with students for my school grade, I need to learn the grammar in KOREAN WAY. I try to memorize them but I'm not a very good memorizer. I learned a lot from solving so many

problems. In class, I take notes and work on practice KSAT. I study grammar mostly through the textbook that we use in class.

(학생 F): 선생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다. 나는 문법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을 잘 들어야 수능문제를 풀 수 있다.

(2)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학생

영어는 잘 하지만 수능이나 학교 시험을 잘 보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교 수업방식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학교수업은 단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였다. 이러한 학생들은 학습방법이 못마땅하지만 교사와 다른 학생들의 눈에 띄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수업을 받거나 교사의 시선을 피해 다른 잡지나 신문을 읽는다. 본 연구에 참여한 다른 응답자와 마찬가지로 응답자 D는 학교의 영어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는 척하지만 사실 교과서 이외에 토플 책을 항상 옆에 놔두고, 영어 교사의 눈을 피해, 학급 분위기를 깨지 않고 튀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교과서 지문 대신 토플 문제를 푼다.

(학생 C): 영어 수업은 어떤 때는 듣고 어떤 때는 안 들어요. 한국 선생님의 수업방식을 별로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시험문제에 나오니까 들어야 해요. 하지만 어쩔 땐 지문내용이 너무 쉽고, 문법 설명이 지루해서 저 혼자 토플 문제를 풀어요. 어차피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다른 시험을 준비해야하니까.

(학생 E): 수능 체제 문제가 맨 처음에는 쉽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한국식 영어 시험이 수준이 있다고 생각한다. 토플은 글의 flow만 알면 되는데 한국식 수능은 exact meaning을 알아야 하므로 요새는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 토플과 문제 형식이 다르니까 한국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혼자 수능 문제를 풀거나 좀 지루해지면 토플 문제를 푼다.

(3) 부정적으로 수용하는 학생

효과적인 영어 학습에 대해 강한 신념을 지닌 일부 귀국학생들은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문법이 아니라 영어 의사소통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학교 수업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들은 한국식 수업방식에 적응하는 것을 어렵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일단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이러한 문법, 독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어 수업방식이나 영어 시험에 적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하고 있었다. 이들은 수업시간에 수업활동에 좀처럼 참여하지 않고 잠을 자거나 짹과 장난을 치거나 하여 수업을 방해기도 한다. 실제 학생 G는 수업시간에 친구와 장난을 치거나 영똥한 소리를 하여 웃음을 자아내다가 학생들이 관심이 수그러들면 이내 잠을 자버린다. 한편,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이들은 수업시간에 문제가 취급을 받거나 교사를 무시한다고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학생 B): 우리나라 영어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 학교 선생님의 발음이 너무 안 좋았다. 수업방식도 그렇고. 영어수업시간에 대부분 잤어요.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을 좀 듣다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고 재미없으니까, 그냥 교과서 지문 읽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좀 지나면 재미없게 되요.

(학생 G): 나는 한국식 수업에 적응하려고 배우지도 않았다. 수능 공부하나 안하나 점수는 똑같아요. 한국식으로 배우는 것은 제 영어 스타일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식 수업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중학교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 문법시간에 관계대명사나 주어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딴 생각한다.

4. 연구 문제

귀국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어휘 학습법과 영어 수업 방법은 무엇인가?

귀국학생들은 자신의 해외 체류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효과적인 영어 학습 방법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언어를 습득한 것처럼, 학교에서도 원어민 선생님을 더 많이 고용하여 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듣기, 말하기를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직접 원어민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고, 의사소통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1) 효과적인 영어 학습법

효과적으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영어 지식이 아니라 영어 사용을 목적으로 한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영어 사용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단어, 문법 암기, 해석보다는 교사나 또래들과의 상호작용, 독서 후 저널쓰기와 같은 총체적인 언어 학습법이 필요하다.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문법과 어휘를 학습한 귀국 학생들은 명시적인 문법 설명보다는 의미에 초점을 둔 암시적으로 형식 설명을 선호하며, 문법 보다는 읽기와 쓰기활동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동화책, 소설책, 신문, 영화, TV, 라디오 매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 입력에 노출되어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학생 A): 일기를 쓰는 것이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비슷한 내용의 글이라도 자주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을 잘 알게 해준 것 같다. 내가 교사가 된다면 많은 글을 읽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미국에서도 역시 의무적인 독서시간이 있었고 많은 독서를 통해서만 좋은 표현들을 익힐 수 있다.

(학생 B): I think there should be more speaking, less memorizing. 영어 수업 시간에 무조건 한국말로 번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영어를 영어로 이해할 수 있는데 굳이 해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차라리 영어로만 수업하고 문법보다는 회화위주로 재미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했으면 좋겠다. 교과서 수업보다는 영어 책을 읽고 에세이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학생 C): 원어민이 모든 수업을 맡았으면 좋겠다. 원어민 수를 더 늘려야한다. 1명의 원어민은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에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학교에서 책을 읽고 저널을 쓰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법 보다는 읽기량 글쓰기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

(학생 D): Read books, interact with others in English, debate, try to use English in a daily basis. If I were a teacher, I would teach how to use it. I would not make them memorize all the grammar and words but let them know naturally by using it often.

(학생 E):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listen. When we listen, we are allowed to copy what we hear.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온 표현은 언제 사용하는지 알려주고 상황에 따른 어조나 억양을 살려 짝과 대화도 나눠보는 등 점차 수준을 향상시켜 뉴스, 토크, 쇼 등 다양한 매체를 접하는 것이 좋다. 동화책에서 소설책, 신문 등 여러 가지 학생의 수준에 맞게 영어에 노출 시키는 것이 좋다.

(학생 F): Talk in English whatever you want to say and wherever you are.

English teachers should teach English poems. Through English poems students can learn words and how to use the words in English.

(2) 효과적인 어휘 학습법

귀국학생들은 extensive reading을 통해 어휘를 부수적으로 익히고, 새로운 단어를 접하면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단어 사용과정을 통해 자신의 어휘지식체계에 내재화 시켰다. 귀국학생들이 사용하는 단어 학습법을 살펴보면, 책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를 인식(noticing)하고, 사전을 통해 단어 의미를 익히고 암기하는 과정(retrieval)에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단어를 이용하여 스스로 예문을 만들어 보거나 원어민과 대화할 때 단어를 사용해보는(generative use)과정을 거친다. 생산적으로 어휘를 사용해보는 과정은 실생활에 무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계속된다. 또한 학습자들은 어휘와 문법을 분리시키지 않고, 다양한 읽기와 단어를 이용한 문장쓰기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어휘가 문법적으로 쓰이게 되는지 습득하게 된다.

(학생 B):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그냥 무시하고 읽다가 나중에 나타나면 사전에서 무슨 뜻인지 살펴본다. 그리고 단어를 외운 후 단어를 이용하여 한두 문장의 예문을 써본다. 어려운 단어를 회화에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문장을 계속 써본다.

(학생 D): Memorizing words is not that awful but it is not efficient.

원서를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를 영영사전에서 찾아보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나만의 문장을 만들어 본다. 또한 idioms, collocations를 알기 위해서 영화나 실생활 영어가 많이 쓰이는 것을 듣거나 본다.

(학생 F): 글을 읽거나 문장을 여러 번 읽으면 모르는 단어도 그 단어의 쓰임까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또한 비슷한 단어끼리 모아두고 잘 생각해보면 공통점이 보이는데 어원을 대충 짐작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단어를 쉽게 외울 수 있게 된다.

오늘 외운 단어는 가능하면 외국인 선생님과의 대화를 나눌 때 사용한다. 그러면 절대 잊지 않게 된다. 만약 쓰임이 잘못되면 사용법을 알려주시므로 매우 유익하다. 또 외운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기도 한다.

(학생 F): 영어 팝송을 듣거나 영화나 TV를 보면서 단어를 배웠으면 좋겠다.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표현 같은 것을 외우면 단어나 숙어를 오랫동안 기억되고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유익하다.

(학생 G): 단어장 갖고 하루에 100~200개 정도 외우고 나머지 대부분은 대화중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그때 물어보거나 사전 찾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익힌다. 일단 단어를 찾으면 최대한 그 단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하루에 모르는 단어 가지고 문장을 100개정도 계속해서 만들어서 사용해 봤다.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그렇게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진다. 그리고 나중에 말할 때 그걸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문을 읽고 토의하거나, 관심사에 맞는 주제를 선택해서 말을 하면 어

휘와 문법을 다 알게 된다. 선생님이 잘못된 표현을 고쳐주거나 추가로 더 나은 표현방식을 가르쳐주면 어휘나 문법을 익히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일기를 쓰는 것이 영어 학습에 좋다. 새로운 단어를 직접 사용할 수 있고, 작문실력도 늘고 에세이를 쓸 때도 도움이 된다.

V 시사점 및 제언

1. 영어 교육에 시사점

이들을 위해서 명시적인 문법 설명보다는 입력채도, 입력강화, 문법의식화와 주목하기와 같은 의미에 초점을 둔 암시적 형태 교수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특히 lexico-grammar 접근 방식을 택하여 문법과 어휘를 분리시키지 않고 어휘를 익히면서 자연스럽게 문법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야할 것이다. 해석위주의 읽기 보다는 독해능력뿐 아니라 읽기와 쓰기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어휘와 문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총체적인 읽기 학습이 필요하다. 영어 지문을 읽고 내용을 요약하거나 자기말로 다시 써보거나 말하기(restating 이나 retelling), 뉴스를 듣고 다시 써보기(dictogloss)와 같은 활동은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과 어휘 학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교실 밖의 상황에서는 다독과 TV, 신문 등 다양한 언어 자료에 노출되도록 독려하여 스스로 어휘, 문법 및 읽기와 듣기 능력을 능동적으로 기르며, 저널쓰기와 외국인과의 대화하기를 통해 자신이 배운 것을 실제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귀국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어휘 학습 방법

1) 다독을 통한 우연적 어휘 학습

다독은 자신의 언어 수준과 흥미를 우선하여 읽을 뿐만 아니라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일일이 찾지 않고 앞 뒤 문맥이나 주변 어휘 등에 의해 추측을 하면서 전체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능숙하게 읽을 수 있다. 읽기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는 어휘와 구문의 반복을 통하여 복습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단어가 나오더라도 책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단어를 습득하고 그 뜻을 이해하게 된다.

2) 자연스러운 언어 노출을 통해 어휘 양 확대하기

교실 밖에서도 영자 신문, 영어 뉴스, TV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자연스러운 언어에 노출되도록 한다. 영어 신문 포트폴리오, 영어 뉴스듣기 포트폴리오는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맞게 영어매체를 선택한 후 스스로 어휘를 습득하도록 하는 것으로 글을 읽거나 들은 후에 내용을 요약해 보고 새로운 어휘가 문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주의하도록 한다. 새로운 어휘가 나오더라도 문맥을 통해 단어의 뜻을 유추해 본 다음 어휘 목록을 작성하여 단어의 의미를 적어보고 단어의 쓰임을 익히도록 한다. 지속적으로 자연스러운 언어 입력에 노출되면서 학생들은 자주 쓰이는 기본 어휘는 물론 idioms, collocations를 알게 되고 고급 수준의 학문적인 어휘까지를 습득할 수 있다.

3) 어휘지식을 실제 사용으로 이끌기

새로운 어휘를 생산적인 사용과정을 통해 의미를 습득하고 실제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말하기와 쓰기활동을 제시한다.

(1) paraphrasing

새로운 단어에 대해 스스로 정의를 내리거나 새로운 어휘가 쓰인 문장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글로 써보거나 동료들에게 설명해본다. 새로운 단어의 정의를 영어로 써봄으로써 어휘력뿐만 아니라 표현력을 길러 주고, 능동적으로 어휘 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장기적으로 기억된다.

(2) 계문 쓰기

어휘를 습득했다 하더라도 그 어휘를 실제 언어생활에서 적절하게 쓸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어휘 습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새로운 단어로 짧은 예문을 써 보게 함으로써 어휘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실제 언어생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짧은 문장 쓰기는 어휘에 대한 문법적 쓰임까지 자동으로 습득하게 하여 어휘력의 질적 심화를 꾀할 수 있다.

(3) 시연하기

TV나 영화에서 새로 배운 단어를 이용하여 대화를 만들어 본 후 다른 학생들 앞에서 시연해 보게 한다. 대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운 어휘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게 되고 그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문맥에 맞게 그 어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4) dicto-comp retelling

dicto-comp는 짧은 글을 듣고 이를 원문에 가깝게 글로 재구성해보는 방법이고 retelling은 말로 재구성해보는 방법이다. 원문에 사용된 단어나 문장의 패턴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자기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원문에 사용된 문법 패턴을 똑같이 재생해봄으로써 어휘의 의미와 어휘의 문법적 패턴을 익히기에 유용하다.

(5) 저널 쓰기

책을 읽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새로 배운 단어를 이용하여 써보게 한다. 어휘를 학습자 자신에게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문장을 쓰면서 단어가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알게 되어 문법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글쓰기 능력,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준다.

(6) 영어 신문 읽고 토론하기

학생들의 관심사나 시사에 관한 신문 기사, 잡지, 인터뷰를 읽고 토론한다. 신문기사에 나온 말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어휘를 쉽게 기억하고 실제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자신의 논지에 대한 논리성을 기르고 풍부한 배경지식으로 습득할 수 있다.

오희진

e-mail: jeweloh@nate.com

Mobile: 011-9611-810